

편집위원 칼럼

죽음의 때를 아는 것도 축복이다



최진호
(최진호연구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사는데 각자 자신이 자기 일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일생에서 나 자신의 의지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내가 내 일생의 주인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이 세상에 자신의 의사(意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한다. 그뿐아니라 누구나 자기 일생의 상당부분, 즉 어린시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부모 등)에게 의존하여 지내게 된다.

그리고 나서도 그의 일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환경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일생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은 종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굳이 높은 수준의 신학적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다고 한다. 내 일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없는 요인들(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에 의해서 내 일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나의 결심,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자율적인 노력에 따라서 내 일생이 가치있는 일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인격체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나의 일생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임시로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언젠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이 자기

의 소유가 아니므로 집을 험하게 사용해서 흠집이 생기더라도 수리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세든 사람이 떠날 때 집주인이 집을 철저히 점검해서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을 주고 집을 함부로 사용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한다면 세든 사람은 집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분명히 회계하신다고 한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받은 우리의 일생을 가치있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게 없다.

아직도 살 날이 얼마쯤은 남아 있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때 한가지 잔꾀가 머리속에 떠 오른다. 비록 일생을 깨끗하고 가치있게 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뒷정리라도 잘 해서 돌려드린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세들었던 사람이 떠날 때 집을 너저분하게 어질러 놓은 상태로 남겨 놓고 떠나는 것보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떠난다면 집 주인의 기분이 좋지 않겠는가? 사는 동안에 다소 시끄럽게 떠들었거나 불편하게 했던 일도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돌려 달라 하실지 모르는 것이다. 만일 내가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이것 저것 잔뜩 어질러 놓은 일들의 뒷정리는 누가 할 것이며 누군가가 정리를 하다 보면 드러날 지저분한

것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한 생각이 든다.

가능만 하다면 깨끗이 정리해 놓고 죽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태어날 때에는 내가 태어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태어났지만 죽는 것만이라도 언제쯤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이 있다고 한다.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병의 치유가능성이 희박하나마 어느 정도라도 있고 환자 자신의 낮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한 경우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병이라고 말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설사 전혀 치유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의 기간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는 것보다 거짓이라도 희망을 갖고 지내도록 한다는 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환자 본인에게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죽음에 대비한 마음의 준비는 물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나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다면 반드시 알려주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치는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정리도 못하고 죽는데 비해서 자신의 죽음의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라 생각된다.

가만있자. 얘기를 하다보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 하나님! 그렇다고 저에게 불치병에 걸리게 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양계